

신선식품 '절대 강자' 전남 농산물

롯데마트 '산지특심' 참여 70여 품목 중 영암 무화과 등 10종 포함 까다로운 현장 평가 통해 선정...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 품질 인정

전국 126개 매장을 둔 롯데마트에 직접 납품되는 70여 농수축산물 가운데 10개 품목 생산자가 광주·전남 농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이 업체가 지난해 8월부터 운영 중인 '대한민국 산지특심' 참여 70여 개 품목 가운데 순천 해금골드키위, 영암 무화과, 해남 밭고구마, 완도 녹차매생이 등 10개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9곳을 포함한 롯데마트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 산지특심' 프로젝트를 내걸고 전국 농수축산물 우수 산지 생산자들의 상품을 직거래로 선보이고 있다. 우수 신선식품을 유지해 매장으로 고객들을 유입하고 상품 경쟁력을 강화해 대형마트의 위기를 극복 하자는 취지에서다.

롯데마트는 현재 과일, 채소, 수산물, 축산물 등 총 70여 개 품목 '로컬 푸드' (Local food)를 발굴했다. 이들 상품은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전국 점포에서 470억원의 매출 (1월22일 기준)을 올렸다.

롯데마트의 우수 농산물 생산자 선정 과정은 까다롭다.

롯데마트는 한 달에 걸쳐 전국 농산물 생산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뒤 서류·현장 평가를 진행한다.

구비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업허가서, 선적증서 등이 있다. 농산물우수관리(GAP)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서류도 제출할 수 있다. 차별화된 품종이나 품목을 생산할 경우 가산점을 받는다.

롯데마트 구매담당자(바이어)가 직접 찾아가는 현장 평가 배점 기준은 재배관리 위생·안전성 60%, 생산자 평가 40% 등으로 구성된다.

롯데마트에 21t 규모 무화과를 납품하고 있는 김중팔(70) 농업회사법인 영암녹색무화과㈜ 대표는 "대형마트에 납품하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며 행복의 비명을 질렀다. 40여 년 동안 무화과 농사를 지어온 김씨는 10년 전 전국 최초로 무화과 품목 GAP 인증을 받았고 영암 무화과 클러스터 사업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1억2000만원 상당 무화과를 롯데마트에 납품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재배 과정에서 화학비료나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액비 제조기, 해충 포획기, 부직포 피복 등을 사용하며 친환경식 재배를 한 것이 롯데마트 납품 선정에 주된 이유가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영암 무화과가 수도권·경상권 등 전국 소비자 발상에 오른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영암 김중팔(왼쪽)씨가 재배한 무화과와 순천 이연옥씨의 골드키위는 롯데마트 '대한민국 산지특심'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 소비자 발상에 오르고 있다.



롯데마트의 또다른 '산지특심' 생산자에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4회 농업마이스터'에 선정되며 명품 '잡다래' 장인으로 꼽힌 이연옥(52)씨도 포함됐다.

롯데마트의 또다른 '산지특심' 생산자에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4회 농업마이스터'에 선정되며 명품 '잡다래' 장인으로 꼽힌 이연옥(52)씨도 포함됐다. 롯데마트는 계절에 맞춰 광주·전남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축산물을 차례로 선보일 방침이다.

롯데마트는 지난 30일 서울 본사에서 지난해 우수 로컬푸드 생산자, 신규 생산자와 함께

'로컬푸드 우수 생산자 협약식'을 가졌다.

문영표 롯데마트 사업부장은 "대한민국 산지특심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롯데마트가 곧 산지'라는 가치를 명확히 전달하고, 신선식품의 절대 우위를 확보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210만 농민 대표' 농협중앙회장 이성희씨 당선

첫 수도권 출신 회장

전국 210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첫 수도권 출신 회장이 탄생했다.

2일 농협중앙회는 지난 31일 서울 본사에서 치러진 농협중앙회 24대 회장 선거에서 이성희(71·사진) 전 경기 성남 낙생농협 조합장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4년이다.

이 당선자는 이날 오전 1차 투표를 1위로 통과한 뒤 결선 투표에서 전체 293표 중 177표(60.4%)를 얻어 2위로 결선에 오른 유남영(64) 정읍농협 조합장(116표, 39.6%)를 61표차로 제쳤다. 이번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1,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했다.

10명의 후보 가운데 전남 대표로 출마한 문병안(61) 보성농협 조합장은 1차 투표에서 12표를 얻었다. 결선에 진출한 이성희·유남영 후보 외에는 강호동 후보 56표, 최덕규 후보 47표, 이주선 후보 21표를 기록했고 전호진 후보와 임명택 후보는 한 표도 얻지 못했다. 수도권 출신 최초 농협중앙회장이 되는 이



결선 투표에서 김병원 전 회장에 역전패해 고배를 마셨다.

이 당선자는 임기 동안 '농업인 월급제' 등 안정된 농가본소득체계를 구축하고 ▲농축산물유통구조 혁신 ▲4차산업혁명 바탕 디지털농업육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4개년 추진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기 4년 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이지만, 농협중앙회 산하 계열사 대표 인사권과 예산권, 감사권을 갖고 농업경제와 금융사업 등 경영 전반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콩·팥 보급증 신청하세요"

벼·일미·미품 등 1874t 추가 신청
콩·팥 오늘부터 다음달 17일까지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은 3일부터 일미, 미품 등 2019년산 벼 정부 보급증 추가 신청을 받는다.

전남지원은 이날부터 파종기 전까지 벼 정부보급증 14품종 총 1874t을 종자원 전자민원 시스템이나 지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전남지원 개별신청 대상 벼 보급증은 일미, 미품이다.

이번 신청대상 품종은 삼광이 643t으로 가장 많고 추청(297t)이 뒤를 이었다.

공급가격은 1포당(20kg) 매벼 미소독 4만 4700원, 칠벼 미소독 4만6320원이다. 종자대금을 공급 기관에 입금하면, 택배(택배비 신청자 부담) 또는 기관에 직접 방문해 받을 수 있다.

3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는 콩·팥 보급증 신청도 진행된다.

전남지역에서 신청가능한 콩 보급증은 두부

·장류용 등으로 대월(50t), 태광(40t), 대찬(20t)이 있고, 나물용으로는 풍산나물(85t) 등 총 4종 195t이 있다.

종자원은 이번에 논 재배에 적합하고 꼬투리가 높고 탈려 수확 시 기계화 작업이 용이한 대찬·선풍을 확대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공급 가격은 소독·미소독 여부에 관계없이 1포당(5kg) 2만5519원이다.

팥 역시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미소독 종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별 공급량은 최근 3년간 재배면적을 고려해 배정됐다.

전국 공급량은 아라리 품종 10t이며 전남지역에는 3.7t 공급된다.

가격은 4만3860원(5kg 1포대)이다. 아라리 품종은 수확 때 농기계 작업이 쉽고 통팥·양곡 제조 등 활용도가 높아 국내 팥 자급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종자원 측은 설명했다.

콩·팥 보급증은 해당 기간동안 시군 농업기술센터(농업인 상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하면 4월1일부터 5월11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 받을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주간 증시 전망

신종 코로나 여파...코스피 5.66% 하락

춘제 연휴 후 첫 개장 중국 증시 주목

트럼프 대통령 의회 연두교서 발표 관심

상승세를 이어가던 글로벌 증시가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북풍을 만났다. 통상 전염병은 대부분 초기에 약재를 선반 영한 후 안정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국내경제에도 단기간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휴 이후 코스피지수는 5.66% 하락하며 2119pt까지 내려갔고 상대적으로 반등 폭이 작았던 코스닥 지수도 지난해 6.47% 하락하며 958.5pt까지 떨어졌다.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던 미국증시도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코로나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하고 신종 코로나 상황이 2003년 사스(SARS) 사태보다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다우지수 -2.09%, S&P500지수 -1.77% 하락했다.

필자도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충격이 SARS 당시보다 클 수 있다 생각된다. 근거는 SARS 보다 확산속도가 월등하게 빠르고 중국 정부의 보건시스템이 높아졌지만 무증상 잠복기 상태에서 전염이 나타나고 있어 통제가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2003년 당시보다 중국의 경제 규모 및 해외 관광객 출입국자 숫자 등이 월등하게 커졌다. 또한 2003년 중국의 GDP는 전세계 4%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15%이상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2003년에 대비해 국내 경제의 중국 의존도도 훨씬 높아졌기 때문이다.

연휴를 마치고 2월3일 중국시장이 개장하는데 상태종합지수 하락폭에 따라 금융시장 공포감도 최대치에 다다를 것으로 보이며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진핑 주석 방한 기대로 반등했던 중국 관련주는 1월17일 이후 상승 폭을 대부분 반납했지만 반등을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과거 SARS와 메르스의 사례에서 보면 감염자수 및 사망자수가 증가하는 시기에 주식시장은 하락하다가 감염자수 증가 폭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주가가 진정되며 반등을 나타내는데 최근 확산 속도를 감안하면 아직 추가 반등을 논하기 어렵다고 본다.

1월20일 코스피지수 고점 이후 외국인과 기관수급을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지수)에서 외국인은 1조4754억원과 기관은 1조3622억원을 순매도하고 있고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 2539억원과 기관 4631억원을 순매도 했다. 과거 SARS사태 때 외국인 순매도는 일간 신규 감염률이 1%이하로 낮아질 때 본격적으로 국내주식시장에서 매수를 시작했다.

또한 제한적인 증시 수급상황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큰 업종으로 수익률에도 영향을 주었다. 보수적인 투자자는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하는 시기를 기다렸다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는 업종으로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인 투자자라면 글로벌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코스피지수 2100선이라는 저점 매수권역이라 할 수 있어 반도체업종과 상대적 수혜가 기대되는 인터넷·게임·미디어 등의 비중확대 기회로 삼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이슈로는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두교서 발표가 있다. 지난해에는 '셋다운' 사태와 대북 정책 등에 관심을 보였는데 올해는 탄핵문제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대북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강도에 따라 대북 관련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2지역본부장)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